

여성 비정규직 실태와 정책과제

2015년 3월

김 유 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
노동시장연구센터 소장)

한국노동사회연구소

Korea Labour & Society Institute

서울시 마포구 공덕동 257-3 국민서관빌딩 502호

전화: 02-393-1457 팩스: 02-393-4449

www.ksli.org www.facebook.com/ksliedit

여성 비정규직 실태와 정책과제*

김유선(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
노동시장 연구센터 소장)

- 여성 비정규직 임금은 성차별과 비정규직 차별이 중첩되어 있음.
 - 남성 정규직 임금을 100이라 할 때 여성 비정규직의 월평균임금은 35.9%, 시간당 임금은 41.8%임. 여성 비정규직 중 저임금 계층은 55.7%(시간당 임금 기준) 내지 61.0%(월평균임금 기준)고, 법정 최저임금 미달 자는 140만 명(30.6%)임.
 - 남성 정규직 대비 여성 비정규직 임금격차는 지난 10년 사이 더 심화되었음. 남성 정규직 임금을 100이라 할 때 여성 비정규직의 월평균임금은 37.3%에서 35.9%, 시간당 임금은 42.9%에서 41.8%로 확대되었음. 월평균임금 기준으로 저임금 계층은 57.3%에서 61.0%, 시간당 임금 기준으로 53.3%에서 55.7%로 증가했음. 최저임금 미달 자는 54만 명(12.8%)에서 140만 명(30.6%)으로 86만 명(17.8%p) 증가했음.
- 사회보험 가입률과 노동조건 적용률은 남녀 차이가 발견되지 않고 고용형태에 따른 차이가 뚜렷함.
 - 국민연금 가입률은 남성 정규직(96.6%)과 여성 정규직(97.9%)이 같고, 남성 비정규직(32.8%)과 여성 비정규직(33.0%)이 같음. 퇴직금 적용률도 남성 정규직(99.4%)과 여성 정규직(99.7%)이 같고, 남성 비정규직(31.6%)과 여성 비정규직(29.9%)이 같음.
 - 비정규직의 사회보험 가입률과 노동조건 적용률은 30%대를 넘어서지 못 함. 2014년 8월 국민연금 가입률은 32.9%, 건강보험 가입률은 38.3%, 고용보험 가입률은 38.0%, 퇴직금 적용률은 30.7%, 상여금 적용률은 37.1%, 유급휴가 적용률은 24.4%임.
- 지난 10년 동안 시간제 근로는 107만 명(전체 노동자의 7.4%)에서 203만 명(10.8%)으로 96만 명(3.4%p) 증가했음. 그러나 고용의 질은 오히려 악화되고 있음.
 - 정규직 임금을 100이라 할 때 시간제 근로의 월평균임금은 25.5%에서 22.9%, 시간당 임금은 65.8%에서 48.0%로 격차가 확대되었음. 시간당 임금 기준으로 저임금 계층은 44.3%에서 62.5%로 18.2%p 증가했고, 최저임금 미달 자는 17.2%에서 39.2%로 22.0%p 증가했음.
 - 시간제 근로의 사회보험 가입률과 노동조건 적용률은 10%대를 넘어서지 못 함. 2014년 8월 국민연금 가입률은 14.6%, 건강보험 가입률은 17.8%, 고용보험 가입률은 19.5%, 퇴직금 적용률은 13.1%, 상여금 적용률은 16.5%, 유급휴가 적용률은 8.2%임.

* 이 글은 한국노총(3월 11일)이 주최한 여성정책토론회 “여성 노동의 비정규직화,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가?”에서 발표한 글입니다.

여성 비정규직 실태와 정책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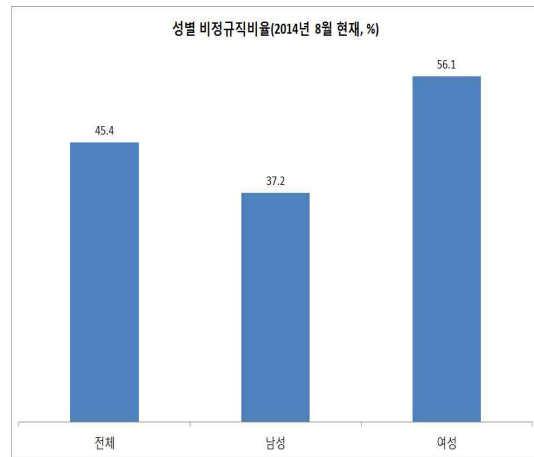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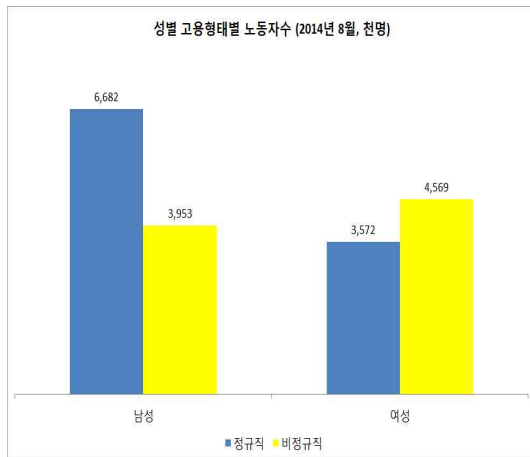
김유선(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원,
노동시장 연구센터 소장)

1. 머리말

- 이 글은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원 자료에서 여성 비정규직 실태와 정책과제를 살펴보는데 목적이 있음.
- 성별 고용형태별로 비정규직 규모와 월평균임금, 시간당임금, 저임금계층, 최저임금 미달 자, 주당 노동시간 평균, 주52시간 초과근무자, 근속년수, 장단기 근속자, 사회보험 가입률, 노동조건 적용률, 노조 조합원수와 조직률 실태와 추이를 살펴봄.
- 분석 시점은 2004년 8월, 2009년 8월, 2014년 8월임.
- 지금까지는 정부와 마찬가지로 파견근로와 용역근로를 구분해서 분석했으나, 이 글에서는 파견근로와 용역근로를 한데 묶어 파견(용역)근로 실태를 분석함.
- 부가조사에서는 임금을 파견업체에서 받았다고 응답하면 파견근로, 용역업체에서 받았다고 응답하면 용역근로로 분류될 뿐, 파견근로와 용역근로를 구분해야 할 근거가 없음.
- 정부처럼 파견근로와 용역근로를 구분하면, 파견근로의 규모와 실태를 축소·왜곡하는 통계적 착시 현상이 생겨남(자세한 것은 김유선(2015), “박근혜 정부 ‘비정규직 종합대책’ 진단”, KLSI 이슈페이퍼 2015-02, 13-14쪽 참조).

2. 비정규직 규모

- 2014년 8월 현재 비정규직은 852만 명이며, 여성 비정규직(457만 명)이 남성 비정규직(395만 명)보다 62만 명 많음.
- 전체 비정규직 비율은 45.4%이며, 여성 비정규직 비율(56.1%)이 남성 비정규직 비율(37.2%)보다 19.2%p 높음.
- 호출근로를 제외한 모든 고용형태에서 여성 비정규직 비율이 높음. 특히 시간제는 여성이 145만 명(17.8%)으로 남성 59만 명(5.5%)보다 86만 명(12.3%p) 많음.



- 지난 10년 사이(2004~2014년) 비정규직은 816만 명에서 852만 명으로 36만 명 증가했음. 그러나 비정규직 비율은 55.9%에서 45.4%로 10.5%p 감소했음.
- 남성은 393만 명, 395만 명으로 변함이 없지만, 여성은 423만 명에서 457만 명으로 34만 명 증가했음. 남성 비정규직 비율은 46.3%에서 37.2%로 9.1%p 감소했고, 여성 비정규직 비율은 69.4%에서 56.1%로 13.3%p 감소했음.
- 시간제는 107만 명(7.4%)에서 203만 명(10.8%)으로 96만 명(3.4%p) 증가했음. 남성은 28만 명(3.3%)에서 59만 명(5.5%)으로 31만 명(2.2%p) 증가했고, 여성은 79만 명(13.0%)에서 145만 명(17.8%)으로 66만 명(4.8%p) 증가했음.

<표1> 성별 고용형태별 노동자수 (단위: 천명)

	남녀			남성			여성			
	2004년	2009년	2014년	2004년	2009년	2014년	2004년	2009년	2014년	
임금노동자	14,584	16,479	18,776	8,489	9,515	10,635	6,095	6,964	8,141	
정규직	6,428	7,934	10,254	4,561	5,539	6,682	1,867	2,395	3,572	
비정규직	8,156	8,545	8,522	3,928	3,976	3,953	4,228	4,569	4,569	
고용 계약	임시근로	7,906	8,384	8,225	3,744	3,889	3,836	4,162	4,495	4,389
	장기임시	4,485	4,677	4,817	2,021	2,118	2,175	2,464	2,559	2,642
	한시근로	3,421	3,706	3,408	1,723	1,771	1,661	1,698	1,935	1,747
	(기간제)	2,491	2,816	2,749	1,348	1,364	1,341	1,143	1,452	1,408
시간	시간제	1,072	1,426	2,032	278	369	587	794	1,057	1,445
근로 제공 방식	호출근로	666	883	805	395	574	557	271	309	248
	특수고용	711	637	524	308	204	189	403	433	335
	파견용역	530	787	799	292	415	405	238	372	394
	(파견)	117	165	195	53	72	80	64	93	115
	(용역)	413	622	604	239	343	326	174	279	278
	가내근로	171	99	58	23	12	4	148	87	54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부가조사 원 자료 (각 년도 8월)

<표2> 성별 고용형태별 노동자 비율 추이(단위: %)

	남녀			남성			여성			
	2004년	2009년	2014년	2004년	2009년	2014년	2004년	2009년	2014년	
임금노동자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정규직	44.1	48.1	54.6	53.7	58.2	62.8	30.6	34.4	43.9	
비정규직	55.9	51.9	45.4	46.3	41.8	37.2	69.4	65.6	56.1	
고용 계약	임시근로	54.2	50.9	43.8	44.1	40.9	36.1	68.3	64.5	53.9
	장기임시	30.8	28.4	25.7	23.8	22.3	20.5	40.4	36.7	32.4
	한시근로	23.5	22.5	18.2	20.3	18.6	15.6	27.9	27.8	21.5
	(기간제)	17.1	17.1	14.6	15.9	14.3	12.6	18.8	20.8	17.3
시간	시간제	7.4	8.7	10.8	3.3	3.9	5.5	13.0	15.2	17.8
근로 제공 방식	호출근로	4.6	5.4	4.3	4.7	6.0	5.2	4.4	4.4	3.0
	특수고용	4.9	3.9	2.8	3.6	2.1	1.8	6.6	6.2	4.1
	파견용역	3.6	4.8	4.3	3.4	4.4	3.8	3.9	5.3	4.8
	(파견)	0.8	1.0	1.0	0.6	0.8	0.7	1.0	1.3	1.4
	(용역)	2.8	3.8	3.2	2.8	3.6	3.1	2.9	4.0	3.4
	가내근로	1.2	0.6	0.3	0.3	0.1	0.0	2.4	1.2	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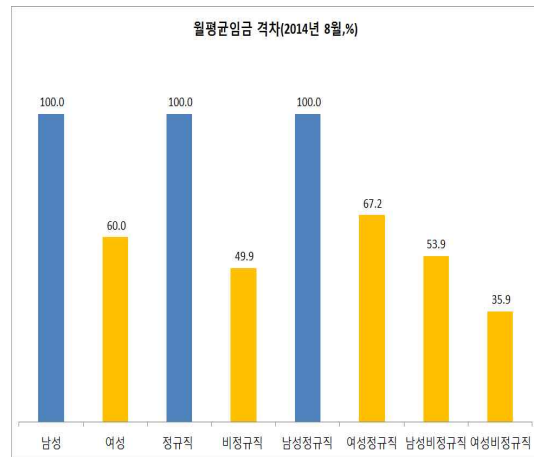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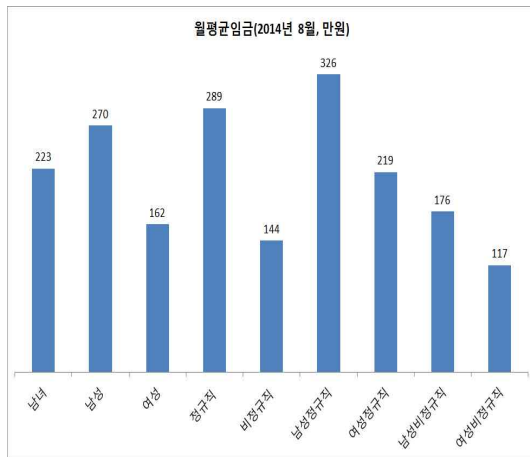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부가조사 원 자료(각 년도 8월)

3. 임금

가. 월평균임금

○ 2014년 8월 현재 임금노동자의 월평균임금은 223만원임.

- 여성의 월평균임금(162만원)은 남성(270만원)의 60.0%임.
- 비정규직의 월평균임금(144만원)은 정규직(289만원)의 49.9%임.
- 여성 비정규직의 월평균임금(117만원)은 남성 정규직(326만원)의 35.9%임.



○ 지난 10년 사이(2004~2014년) 노동자들의 월평균임금은 154만원에서 223만원으로 69만원 증가했음.

- 남성은 187만원에서 270만원으로 83만원, 여성은 109만원에서 162만원으로 53만원 증가했음. 정규직은 211만원에서 289만원으로 78만원, 비정규직은 109만원에서 144만원으로 35만원 증가했음.
- 남성 정규직은 233만원에서 326만원으로 93만원, 여성 비정규직은 87만원에서 117만원으로 30만원 증가했음.

○ 지난 10년 사이(2004~2014년) 남녀 간 임금격차는 58.3%에서 59.9%로 1.6%p 축소되고, 정규직과 비정규직 임금격차는 51.7%에서 49.9%로 1.8%p 확대되었음.

- 남성 정규직 대비 여성 비정규직의 임금격차는 37.3%에서 35.9%로 1.4%p 확대되었음.

<표3> 성별 고용형태별 월평균임금 추이(단위: 만원)

	남녀			남성			여성			
	2004년	2009년	2014년	2004년	2009년	2014년	2004년	2009년	2014년	
임금노동자	154	185	223	187	225	270	109	131	162	
정규직	211	255	289	233	283	326	158	191	219	
비정규직	109	120	144	133	145	176	87	99	117	
고용 계약	임시근로	108	120	143	131	144	175	86	99	116
	장기임시	105	117	137	125	138	166	88	99	113
	한시근로	111	124	152	138	152	186	84	98	119
	(기간제)	119	131	158	145	162	195	88	102	123
시간	시간제	54	54	66	66	57	71	50	52	64
근로 제공 방식	호출근로	84	95	127	107	117	153	50	56	69
	특수고용	139	153	207	158	176	234	125	142	192
	파견용역	100	117	142	116	136	165	81	97	117
	(파견)	127	141	153	162	181	186	98	111	129
	(용역)	92	111	138	105	126	160	74	92	113
	가내근로	56	60	60	113	147	126	47	48	55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부가조사 원 자료(각 년도 8월)

<표4> 성별 고용형태별 월평균임금 격차 추이(정규직=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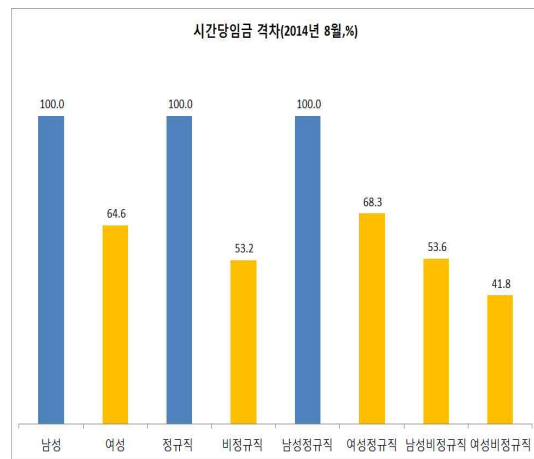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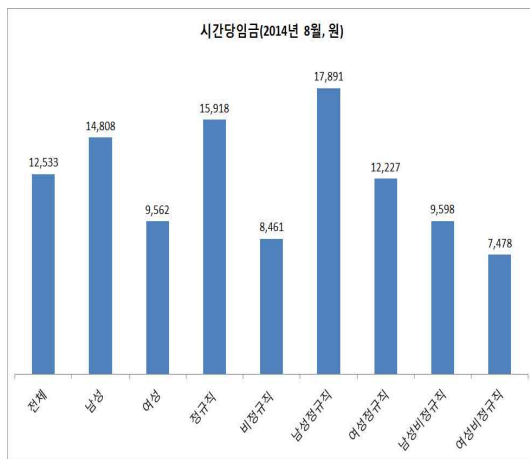
	남녀			남성			여성			
	2004년	2009년	2014년	2004년	2009년	2014년	2004년	2009년	2014년	
임금노동자	73.0	72.6	77.3	80.1	79.7	82.9	68.9	68.4	73.7	
정규직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비정규직	51.7	47.2	49.9	57.1	51.3	53.9	55.0	51.8	53.2	
고용 계약	임시근로	50.9	47.0	49.6	56.2	51.0	53.6	54.7	51.6	52.7
	장기임시	49.6	45.8	47.5	53.6	48.8	50.9	55.7	51.9	51.6
	한시근로	52.7	48.5	52.6	59.2	53.7	57.2	53.3	51.2	54.4
	(기간제)	56.2	51.4	54.8	62.2	57.3	59.9	55.6	53.5	56.2
시간	시간제	25.5	21.0	22.9	28.5	20.2	21.8	31.3	27.3	29.2
근로 제공 방식	호출근로	39.6	37.4	44.1	45.7	41.3	47.0	31.7	29.1	31.6
	특수고용	65.8	60.0	71.7	67.8	62.2	71.9	78.8	74.4	87.4
	파견용역	47.3	46.1	49.1	49.6	48.1	50.7	51.0	50.7	53.5
	(파견)	60.2	55.5	52.9	69.5	64.0	57.2	61.9	58.1	58.9
	(용역)	43.7	43.6	47.9	45.2	44.8	49.2	47.0	48.3	51.3
	가내근로	26.7	23.5	20.9	48.3	52.2	38.6	30.0	24.9	25.3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부가조사 원 자료(각 년도 8월)

나. 시간당 임금

○ 2014년 8월 현재 임금노동자의 시간당 임금 평균은 1만 2,533원임.

- 여성의 시간당 임금(9,562원)은 남성(1만 4,808원)의 64.6%임.
- 비정규직의 시간당 임금(8,461원)은 정규직(1만 5,918원)의 53.2%임.
- 여성 비정규직의 시간당 임금(7,478원)은 남성 정규직(1만 7,891원)의 41.8%임.



○ 지난 10년 사이(2004~2014년) 노동자들의 시간당 임금은 7,822원에서 1만 2,533원으로 4,711원 증가했음.

- 남성은 9,181원에서 1만 4,808원으로 5,627원, 여성은 5,928원에서 9,562원으로 3,634원 증가했음. 정규직은 1만 566원에서 1만 5,918원으로 5,352원, 비정규직은 5,651만원에서 8,461원으로 2,810원 증가했음.
- 남성 정규직은 1만 1,604원에서 1만 7,891원으로 6,287원, 여성 비정규직은 4,982원에서 7,478원으로 2,496원 증가했음.

○ 지난 10년 사이(2004~2014년) 남녀 간 임금격차는 64.6%에서 변함이 없고, 정규직과 비정규직 임금격차는 53.5%에서 53.2%로 0.3%p 확대되었음.

- 남성 정규직 대비 여성 비정규직의 임금격차는 42.9%에서 41.8%로 1.1%p 확대되었음.

<표5> 성별 고용형태별 시간당 임금 추이(단위: 원)

	남녀			남성			여성			
	2004년	2009년	2014년	2004년	2009년	2014년	2004년	2009년	2014년	
임금노동자	7,822	10,059	12,533	9,181	11,961	14,808	5,928	7,460	9,562	
정규직	10,566	13,730	15,918	11,604	15,172	17,891	8,048	10,395	12,227	
비정규직	5,651	6,650	8,461	6,369	7,488	9,598	4,982	5,921	7,478	
고용 계약	임시근로	5,590	6,620	8,392	6,283	7,448	9,544	4,965	5,904	7,384
	장기임시	5,234	6,232	7,823	5,766	6,929	8,840	4,795	5,655	6,986
	한시근로	6,056	7,110	9,195	6,889	8,069	10,465	5,211	6,233	7,987
	(기간제)	6,557	7,616	9,603	7,348	8,698	10,961	5,623	6,599	8,310
시간	시간제	6,954	6,533	7,645	7,599	6,919	7,993	6,728	6,398	7,503
근로 제공 방식	호출근로	4,790	5,534	7,574	5,638	6,286	8,598	3,551	4,134	5,276
	특수고용	7,464	8,762	11,906	7,603	9,389	12,782	7,358	8,468	11,410
	파견용역	4,868	6,100	7,645	5,449	6,472	8,306	4,155	5,685	6,963
	(파견)	6,760	8,103	8,618	9,045	9,639	9,887	4,850	6,919	7,735
	(용역)	4,333	5,567	7,333	4,647	5,807	7,920	3,902	5,273	6,645
	가내근로	3,737	4,315	3,939	6,094	7,512	6,551	3,362	3,857	3,746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부가조사 원 자료(각 년도 8월)

<표6> 성별 고용형태별 시간당 임금 격차 추이(정규직=100)

	남녀			남성			여성			
	2004년	2009년	2014년	2004년	2009년	2014년	2004년	2009년	2014년	
임금노동자	74.0	73.3	78.7	79.1	78.8	82.8	73.7	71.8	78.2	
정규직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비정규직	53.5	48.4	53.2	54.9	49.4	53.6	61.9	57.0	61.2	
고용 계약	임시근로	52.9	48.2	52.7	54.1	49.1	53.3	61.7	56.8	60.4
	장기임시	49.5	45.4	49.1	49.7	45.7	49.4	59.6	54.4	57.1
	한시근로	57.3	51.8	57.8	59.4	53.2	58.5	64.7	60.0	65.3
	(기간제)	62.1	55.5	60.3	63.3	57.3	61.3	69.9	63.5	68.0
시간	시간제	65.8	47.6	48.0	65.5	45.6	44.7	83.6	61.6	61.4
근로 제공 방식	호출근로	45.3	40.3	47.6	48.6	41.4	48.1	44.1	39.8	43.1
	특수고용	70.6	63.8	74.8	65.5	61.9	71.4	91.4	81.5	93.3
	파견용역	46.1	44.4	48.0	47.0	42.7	46.4	51.6	54.7	56.9
	(파견)	64.0	59.0	54.1	77.9	63.5	55.3	60.3	66.6	63.3
	(용역)	41.0	40.5	46.1	40.0	38.3	44.3	48.5	50.7	54.3
	가내근로	35.4	31.4	24.7	52.5	49.5	36.6	41.8	37.1	3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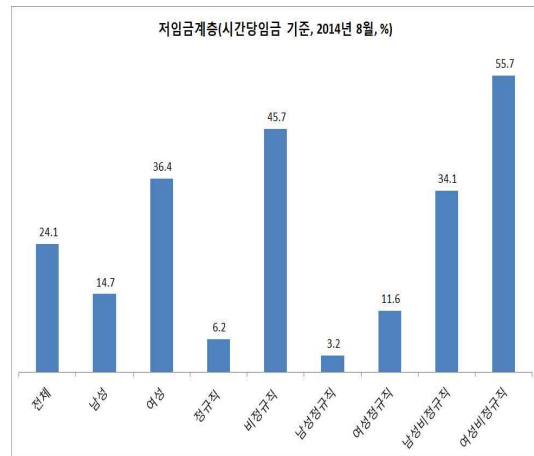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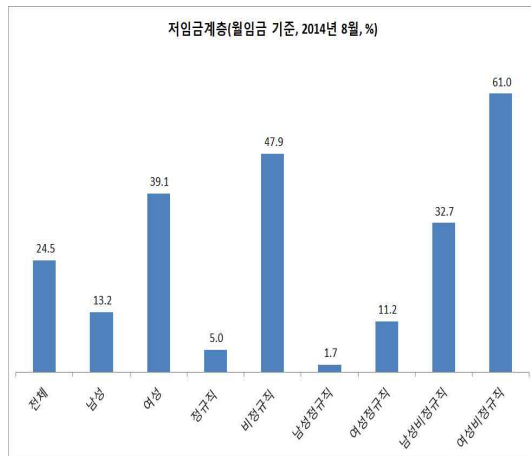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부가조사 원 자료(각 년도 8월)

4. 저임금

가. 저임금 계층

○ 2014년 8월 임금노동자 중 저임금 계층(월평균임금 기준)은 24.5%임.

- 여성은 저임금 계층이 39.1%로 남성(13.2%)보다 25.9%p 많음.
- 비정규직은 저임금 계층이 47.9%로 정규직(5.0%)보다 42.9%p 많음.
- 성별 고용형태별 저임금 계층 비율은 ‘여성비정규직(61.0%) > 남성비정규직(32.7%) > 여성 정규직(11.2%) > 남성 정규직(1.7%)’ 순임.



○ 지난 10년 동안(2004~2014년) 저임금 계층(월평균임금 기준)은 1.4%p 감소했음.

- 남성은 12.7%에서 13.2%로 0.5%p 증가했고, 여성은 44.3%에서 39.1%로 5.2%p 감소했음. 정규직은 5.6%에서 5.0%로 0.6%p 감소했고, 비정규직은 42.0%에서 47.9%로 5.9%p 증가했음.
- 남성 정규직은 1.7%로 변함이 없고 여성 정규직은 15.0%에서 11.2%로 3.8%p 감소한데 비해, 남성 비정규직은 25.5%에서 32.7%로 7.2%p, 여성 비정규직은 57.3%에서 61.0%로 3.7%p 증가했음.

○ 시간제 근로자는 저임금계층이 90.6%로, 지난 10년 사이 6.1%p 증가했음.

- 남성 시간제 근로자는 73.3%에서 88.0%로 14.7%p, 여성 시간제 근로자는 88.4%에서 91.6%로 3.2%p 증가했음.

<표7> 성별 고용형태별 저임금계층 추이(월임금 기준, 단위: %)

	남녀			남성			여성			
	2004년	2009년	2014년	2004년	2009년	2014년	2004년	2009년	2014년	
임금노동자	25.9	22.8	24.5	12.7	11.6	13.2	44.3	38.0	39.1	
정규직	5.6	3.3	5.0	1.7	1.0	1.7	15.0	8.6	11.2	
비정규직	42.0	40.9	47.9	25.5	26.4	32.7	57.3	53.4	61.0	
고용 계약	임시근로	42.8	41.2	48.4	26.2	26.8	33.4	57.8	53.7	61.6
	장기임시	41.6	39.0	50.0	24.1	24.5	32.7	56.0	50.9	64.2
	한시근로	44.4	44.1	46.3	28.7	29.7	34.3	60.4	57.3	57.7
	(기간제)	41.3	41.3	42.9	27.3	27.0	31.0	57.8	54.8	54.1
시간	시간제	84.5	87.5	90.6	73.3	83.0	88.0	88.4	89.1	91.6
근로 제공 방식	호출근로	58.6	52.2	55.2	38.4	33.6	39.1	87.9	86.8	91.1
	특수고용	27.4	26.4	25.6	17.5	21.1	19.0	35.0	28.8	29.3
	파견용역	50.6	40.0	44.4	38.0	24.1	28.9	65.9	57.8	60.5
	(파견)	33.3	29.1	34.9	20.7	13.9	18.9	43.9	40.9	45.9
	(용역)	55.2	42.8	47.7	41.9	26.2	31.6	73.4	63.1	66.5
	가내근로	77.8	82.8	87.9	29.9	40.4	50.2	85.4	88.9	90.7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부가조사 원 자료(각 년도 8월)

○ 2014년 8월 현재 전체 임금노동자 중 저임금 계층(시간당 임금 기준) 비율은 24.1%임.

- 여성은 저임금 계층이 36.4%로 남성(14.7%)보다 21.7%p 많음.
- 비정규직은 저임금 계층이 45.7%로 정규직(6.2%)보다 39.5%p 많음.
- 성별 고용형태별 저임금 계층 비율은 ‘여성비정규직(55.7%) > 남성비정규직(34.1%) > 여성 정규직(11.6%) > 남성 정규직(3.2%)’ 순임.

○ 지난 10년 동안(2004~2014년) 저임금 계층(시간당임금 기준)은 26.7%에서 24.1%로 2.6%p 감소했음.

- 남성은 15.8%에서 14.7%로 1.1%p, 여성은 41.9%에서 36.4%로 5.5%p 감소했음. 정규직은 7.3%에서 6.2%로 1.1%p 감소했고, 비정규직은 41.9%에서 45.7%로 3.8%p 증가했음.
- 남성 정규직은 3.8%에서 3.2%로 0.6%p, 여성 정규직은 16.1%에서 11.6%로 4.5%p 감소한데 비해, 남성 비정규직은 29.7%에서 34.1%로 4.4%p, 여성 비정규

직은 53.3%에서 55.7%로 2.4%p 증가했음.

○ 시간제 근로자는 저임금계층이 62.5%로, 지난 10년 사이 18.2%p 증가했음.

- 남성 시간제 근로자는 저임금계층이 34.5%에서 60.7%로 26.2%p 증가했고, 여성 시간제 근로자는 47.8%에서 63.2%로 15.4%p 증가했음.

<표8> 성별 고용형태별 저임금계층 추이(시간당 임금 기준,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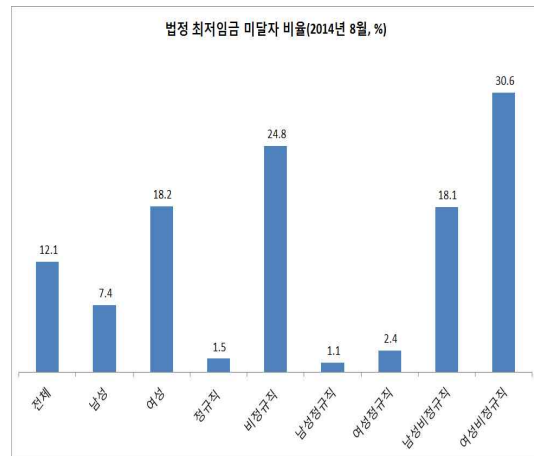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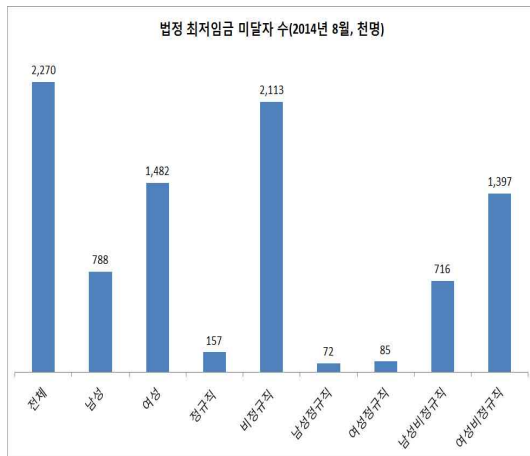
	남녀			남성			여성			
	2004년	2009년	2014년	2004년	2009년	2014년	2004년	2009년	2014년	
임금노동자	26.7	26.2	24.1	15.8	16.7	14.7	41.9	39.1	36.4	
정규직	7.3	5.7	6.2	3.8	3.3	3.2	16.1	11.1	11.6	
비정규직	41.9	45.2	45.7	29.7	35.3	34.1	53.3	53.8	55.7	
고용 계약	임시근로	42.5	45.6	46.5	30.1	35.6	34.7	53.7	54.2	56.9
	장기임시	43.2	46.5	49.3	29.8	34.1	34.2	54.2	56.7	61.8
	한시근로	41.5	44.4	42.6	30.4	37.3	35.3	52.8	50.9	49.6
	(기간제)	36.7	38.8	38.1	27.9	33.1	31.2	47.1	44.1	44.6
시간	시간제	44.3	55.3	62.5	34.5	54.3	60.7	47.8	55.7	63.2
근로 제공 방식	호출근로	50.6	52.7	45.0	33.9	38.7	30.3	75.0	78.7	77.8
	특수고용	22.5	26.2	20.4	21.8	25.0	17.4	23.1	26.8	22.1
	파견용역	54.2	49.7	45.8	47.6	46.5	39.0	62.2	53.2	52.9
	(파견)	35.9	24.8	34.4	24.4	20.8	18.9	45.4	28.0	45.0
	(용역)	59.3	56.3	49.5	52.8	51.9	43.9	68.3	61.6	56.1
	가내근로	67.3	77.8	86.2	29.9	40.4	50.2	73.2	83.1	88.9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부가조사 원 자료(각 년도 8월)

나. 최저임금 미달

○ 2014년 8월 법정 최저임금 미달 자(비율)는 227만 명(전체 노동자의 12.1%)임.

- 여성은 148만 명(18.2%)으로 남성 79만 명(7.4%)보다 69만 명(10.8%p) 많음.
- 비정규직은 211만 명(24.8%)으로 정규직 16만 명(1.5%)보다 195만 명(23.3%p) 많음.
- 성별 고용형태별 법정 최저임금 미달 자(비율)는 ‘여성비정규직(140만 명, 30.6%)> 남성비정규직(72만 명, 18.1%)>여성정규직(9만 명, 2.4%)>남성정규직(7만 명, 1.1%)’ 순임.



○ 지난 10년 사이(2004~2014년) 법정 최저임금 미달 자(비율)는 85만 명(전체 노동자의 5.8%)에서 227만 명(12.1%)으로 142만 명(6.3%p) 증가했음.

- 남성은 30만 명(3.5%)에서 79만 명(7.4%)으로 49만 명(3.9%p) 증가했고, 여성은 55만 명(9.0%)에서 148만 명(18.2%)으로 93만 명(9.2%p) 증가했음.
- 정규직은 2만 명(0.4%)에서 16만 명(1.5%)으로 14만 명(1.1%p) 증가했고, 비정규직은 83만 명(10.1%)에서 211만 명(24.8%)으로 128만 명(14.7%p) 증가했음.
- 남성 비정규직은 28만 명(7.2%)에서 72만 명(18.1%)으로 44만 명(10.9%p) 증가했고, 여성 비정규직은 54만 명(12.8%)에서 140만 명(30.6%)으로 86만 명(17.8%p) 증가했음.

○ 시간제 근로자는 법정 최저임금 미달 자가 39.2%로, 지난 10년 사이 22.0%p 증가했음.

- 남성 시간제 근로자는 법정 최저임금 미달 자가 10.8%에서 38.6%로 27.8%p 증가했고, 여성 시간제 근로자는 19.5%에서 39.5%로 20.0%p 증가했음.

<표9> 성별 고용형태별 최저임금 미달 자 추이(단위: 천명)

	남녀			남성			여성			
	2004년	2009년	2014년	2004년	2009년	2014년	2004년	2009년	2014년	
임금노동자	849	2,104	2,270	298	790	788	551	1,314	1,482	
정규직	24	127	157	17	68	72	8	59	85	
비정규직	825	1,977	2,113	282	722	716	543	1,255	1,397	
고용 계약	임시근로	814	1,958	2,099	273	710	709	541	1,248	1,390
	장기임시	429	1,184	1,277	134	365	366	295	819	912
	한시근로	386	774	822	140	345	344	246	429	478
	(기간제)	263	449	586	99	227	249	164	222	337
시간	시간제	184	516	797	30	136	226	154	380	571
근로 제공 방식	호출근로	147	303	235	38	115	91	108	188	143
	특수고용	35	95	49	15	29	18	20	65	31
	파견용역	72	199	204	47	132	104	25	67	100
	(파견)	6	15	33	3	6	9	4	9	24
	(용역)	66	183	171	44	126	95	22	57	75
	가내근로	73	61	42	4	4	2	69	57	40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부가조사 원 자료(각 년도 8월)

<표10> 성별 고용형태별 최저임금 미달 자 비율 추이(단위: %)

	남녀			남성			여성			
	2004년	2009년	2014년	2004년	2009년	2014년	2004년	2009년	2014년	
임금노동자	5.8	12.8	12.1	3.5	8.3	7.4	9.0	18.9	18.2	
정규직	0.4	1.6	1.5	0.4	1.2	1.1	0.4	2.5	2.4	
비정규직	10.1	23.1	24.8	7.2	18.2	18.1	12.8	27.5	30.6	
고용 계약	임시근로	10.3	23.4	25.5	7.3	18.2	18.5	13.0	27.8	31.7
	장기임시	9.6	25.3	26.5	6.6	17.2	16.8	12.0	32.0	34.5
	한시근로	11.3	20.9	24.1	8.1	19.5	20.7	14.5	22.2	27.4
	(기간제)	10.5	15.9	21.3	7.3	16.7	18.6	14.3	15.3	23.9
시간	시간제	17.2	36.2	39.2	10.8	36.9	38.6	19.5	35.9	39.5
근로 제공 방식	호출근로	22.1	34.3	29.1	9.7	20.0	16.4	40.1	60.9	57.7
	특수고용	5.0	14.9	9.3	4.8	14.4	9.6	5.1	15.1	9.2
	파견용역	13.6	25.3	25.5	16.1	31.9	25.7	10.6	17.9	25.3
	(파견)	5.4	9.4	16.9	5.2	8.6	10.9	5.5	9.9	21.0
	(용역)	16.0	29.5	28.3	18.6	36.8	29.3	12.4	20.6	27.1
	가내근로	42.7	61.5	71.8	17.9	32.3	46.6	46.7	65.7	7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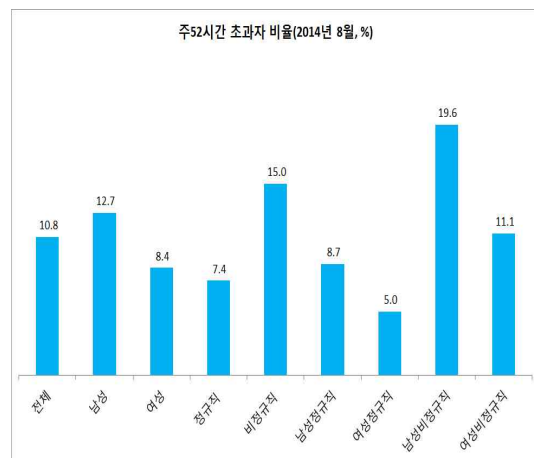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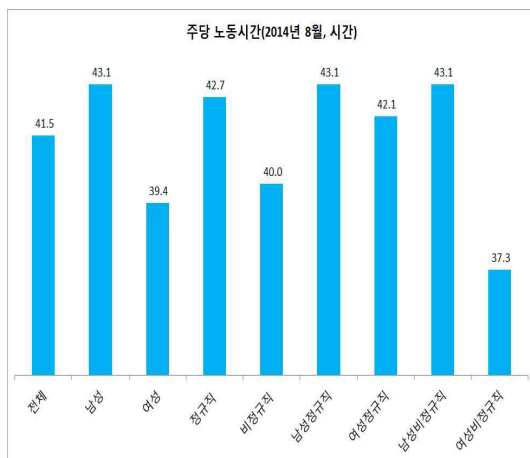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부가조사 원 자료(각 년도 8월)

5. 노동시간

가. 주당 노동시간

○ 2014년 8월 주당 노동시간 평균은 41.5시간임.

- 여성은 39.4시간으로 남성 43.1시간보다 3.7시간 짧고, 비정규직은 40시간으로 정규직 42.7시간보다 2.7시간 짧음.
- 성별 고용형태별 주당 노동시간은 ‘남성정규직(43.1시간)=남성비정규직(43.1시간)> 여성정규직(42.1시간)> 여성비정규직(37.3시간)’ 순임.



○ 주5일제가 실시되면서 지난 10년 동안(2004~2014년) 노동시간은 47.8시간에서 41.5시간으로 6.3시간 감소했음.

- 남성은 49.7시간에서 43.1시간으로 6.6시간, 여성은 45.3시간에서 39.4시간으로 5.9시간 감소했음. 정규직은 47.9시간에서 42.7시간으로 5.2시간, 비정규직은 47.7시간에서 40.0시간으로 7.7시간 감소했음.

<표11> 성별 고용형태별 주당 노동시간 추이(단위: 시간)

	남녀			남성			여성			
	2004년	2009년	2014년	2004년	2009년	2014년	2004년	2009년	2014년	
임금노동자	47.8	43.9	41.5	49.7	45.5	43.1	45.3	41.6	39.4	
정규직	47.9	44.2	42.7	48.4	44.6	43.1	46.8	43.3	42.1	
비정규직	47.7	43.5	40.0	51.1	46.8	43.1	44.6	40.7	37.3	
고용 계약	임시근로	47.6	43.5	40.0	51.0	46.7	43.1	44.5	40.7	37.3
	장기임시	48.9	44.6	41.1	52.5	47.4	43.9	45.9	42.4	38.9
	한시근로	45.9	42.0	38.4	49.2	45.9	42.1	42.6	38.5	35.0
	(기간제)	45.1	41.5	38.1	48.5	45.8	42.1	41.2	37.5	34.4
시간	시간제	22.6	21.3	21.0	23.5	21.0	21.2	22.3	21.4	21.0
근로 제공 방식	호출근로	42.8	39.9	38.4	46.7	43.6	41.1	37.3	33.2	32.5
	특수고용	44.8	40.8	40.6	50.4	44.6	43.3	40.6	39.0	39.1
	파견용역	51.8	47.4	44.1	56.3	53.4	49.2	46.2	40.7	38.9
	(파견)	48.0	41.3	40.7	48.3	44.7	44.6	47.8	38.8	38.0
	(용역)	52.9	49.0	45.2	58.1	55.2	50.3	45.6	41.3	39.3
	가내근로	37.1	32.9	36.0	44.8	45.6	52.6	35.9	31.0	34.8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부가조사 원 자료(각 년도 8월)

나. 주52시간 초과 근무자

- 2014년 8월 현재 주52시간 초과 근무자 비율은 전체 노동자의 10.8%임.
- 여성은 8.4%로 남성 12.7%보다 4.3%p 적고, 비정규직은 15.0%로 정규직 7.4%보다 7.6%p 많음.
- 성별 고용형태별 주52시간 초과 근무자 비율은 ‘남성비정규직(19.6%)>여성비정규직(11.1%)>남성정규직(8.7%)>여성정규직(5.0%)’ 순임.
- 주52시간 초과근무자 비율은 지난 10년 사이(2004~2014년) 27.6%에서 10.8%로 16.8%p 감소했음.
- 남성은 31.1%에서 12.7%로 18.4%p, 여성은 22.7%에서 8.4%로 14.3%p 감소했음. 정규직은 20.5%에서 7.4%로 13.1%p, 비정규직은 33.2%에서 15.0%로 18.2%p 감소했음.

<표12> 성별 고용형태별 주52시간 초과 근무자 비율 추이(단위: %)

	남녀			남성			여성			
	2004년	2009년	2014년	2004년	2009년	2014년	2004년	2009년	2014년	
임금노동자	27.6	16.9	10.8	31.1	19.3	12.7	22.7	13.5	8.4	
정규직	20.5	11.1	7.4	22.7	13.0	8.7	15.2	6.8	5.0	
비정규직	33.2	22.2	15.0	40.8	28.1	19.6	26.1	17.1	11.1	
고용 계약	임시근로	33.0	22.1	15.1	40.6	27.9	19.4	26.2	17.1	11.4
	장기임시	36.9	25.8	17.4	46.1	30.0	19.6	29.4	22.4	15.5
	한시근로	27.9	17.5	12.0	34.3	25.4	19.1	21.5	10.2	5.2
	(기간제)	23.9	14.7	11.0	30.9	23.7	18.8	15.7	6.2	3.6
시간	시간제									
근로 제공 방식	호출근로	27.2	16.5	10.3	32.4	18.8	10.8	19.6	12.3	9.3
	특수고용	23.6	11.8	6.9	37.7	19.6	11.6	12.9	8.1	4.2
	파견용역	39.1	27.2	20.5	50.7	43.4	35.5	24.8	9.1	5.1
	(파견)	31.6	13.3	14.4	32.0	19.4	21.4	31.3	8.6	9.5
	(용역)	41.2	31.0	22.4	55.3	48.4	38.7	21.8	9.7	3.2
	가내근로	15.2	11.1	12.1	29.9	32.3	50.2	12.9	8.1	9.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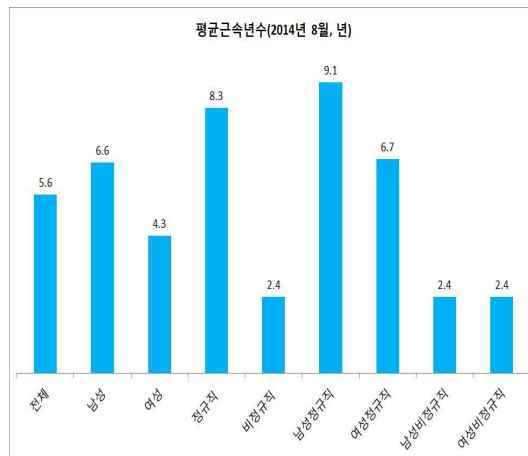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부가조사 원 자료(각 년도 8월)

6. 근속년수

가. 평균 근속년수

○ 2014년 8월 현재 평균 근속년수는 5.6년임.

- 여성은 4.3년으로 남성 6.6년보다 2.3년 짧고, 비정규직은 2.4년으로 정규직 7.7년보다 5.3년 짧음.
- 성별 고용형태별 평균 근속년수는 '남성정규직(9.1년)>여성정규직(6.7년)>남성비정규직(2.4년)=여성비정규직(2.4년)' 순으로 비정규직은 남녀가 같음.



○ 지난 10년 사이(2004~2014년) 평균 근속년수는 4.4년에서 5.6년으로 1.2년 길어졌음.

- 남성은 5.6년에서 6.6년으로 1년, 여성은 2.8년에서 4.3년으로 1.5년, 정규직은 7.7년에서 8.3년으로 0.6년, 비정규직은 1.8년에서 2.4년으로 0.6년 길어졌음.

<표13> 성별 고용형태별 평균 근속년수 추이(단위: 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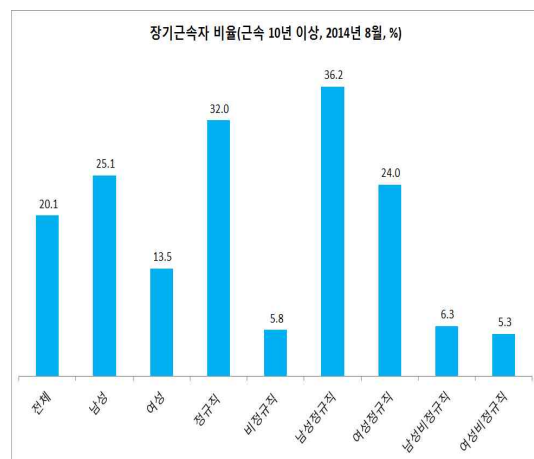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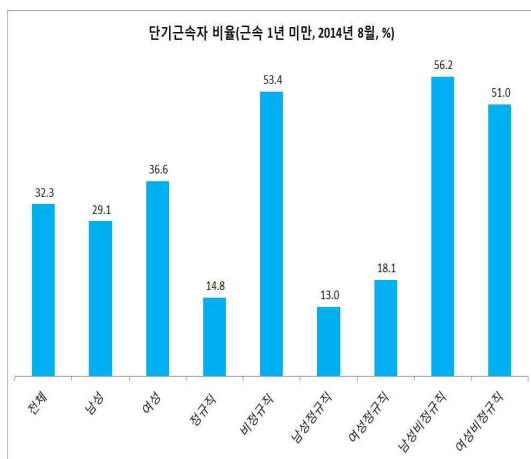
	남녀			남성			여성			
	2004년	2009년	2014년	2004년	2009년	2014년	2004년	2009년	2014년	
임금노동자	4.4	4.9	5.6	5.6	6.0	6.6	2.8	3.4	4.3	
정규직	7.7	8.2	8.3	8.6	9.0	9.1	5.5	6.4	6.7	
비정규직	1.8	1.8	2.4	2.0	1.8	2.4	1.6	1.8	2.4	
고용계약	임시근로	1.7	1.7	2.3	1.9	1.8	2.3	1.6	1.7	2.3
	장기임시	1.7	1.7	2.3	1.8	1.5	2.0	1.7	1.9	2.5
	한시근로 (기간제)	1.7	1.8	2.4	2.0	2.1	2.6	1.4	1.5	2.1
시간	시간제	1.9	1.9	2.4	2.2	2.3	2.7	1.6	1.6	2.2
근로제공방식	호출근로	1.0	1.0	1.5	0.8	0.7	1.2	1.0	1.1	1.6
	특수고용	0.2	0.1	0.1	0.1	0.1	0.1	0.3	0.2	0.1
	파견용역 (파견)	3.1	3.3	5.8	3.3	2.2	4.7	3.0	3.8	6.4
	(용역)	2.0	2.1	2.8	2.2	2.2	3.0	1.7	2.0	2.6
	가내근로	2.2	2.1	2.5	2.9	2.6	3.3	1.6	1.7	2.0
		1.9	2.1	2.9	2.0	2.1	2.9	1.7	2.1	2.9
	1.4	1.0	2.2	3.4	2.2	3.7	1.1	0.9	2.1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부가조사 원 자료(각 년도 8월)

나. 단기 근속자 비율

○ 2014년 8월 현재 단기근속자(근속년수 1년 미만) 비율은 전체 노동자의 32.3%임.

- 여성(36.6%)은 남성(29.1%)보다 7.5%p 많고, 비정규직(53.4%)은 정규직(14.8%)보다 38.6%p 많음.
- 성별 고용형태별로 단기근속자 비율은 '남성비정규직(56.2%)>여성비정규직(51.0%)>여성정규직(18.1%)>남성정규직(13.0%)' 순임.



<표14> 성별 고용형태별 단기근속자 추이(단위: %)

	남녀			남성			여성			
	2004년	2009년	2014년	2004년	2009년	2014년	2004년	2009년	2014년	
임금노동자	39.4	37.8	32.3	33.9	32.6	29.1	47.2	44.9	36.6	
정규직	16.6	13.6	14.8	14.3	11.5	13.0	22.2	18.3	18.1	
비정규직	57.5	60.3	53.4	56.6	61.9	56.2	58.2	58.9	51.0	
고용 계약	임시근로	58.4	60.8	54.3	58.2	62.6	57.2	58.6	59.3	51.8
	장기임시	56.4	60.9	55.0	57.7	66.1	61.1	55.3	56.6	50.0
	한시근로	61.2	60.7	53.3	58.9	58.4	52.1	63.4	62.8	54.5
	(기간제)	58.4	57.5	51.3	56.7	53.9	49.7	60.3	61.0	52.8
시간	시간제	74.7	76.2	68.2	79.4	84.9	78.1	73.1	73.2	64.2
근로 제공 방식	호출근로	95.6	98.2	98.8	96.4	98.9	99.1	94.6	96.9	97.9
	특수고용	43.7	41.4	23.3	44.8	52.5	31.2	42.9	36.2	18.8
	파견용역	48.9	46.3	42.9	46.9	44.1	41.9	51.2	48.6	44.0
	(파견)	47.9	52.1	46.2	35.7	45.8	39.0	58.0	57.0	51.1
	(용역)	49.4	44.7	41.7	49.4	43.7	42.7	49.3	45.9	40.6
	가내근로	71.3	78.8	60.3	46.9	48.5	50.2	75.2	83.1	61.1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부가조사 원 자료(각 년도 8월)

다. 장기 근속자 비율

○ 2014년 8월 현재 장기근속자(근속년수 10년 이상) 비율은 전체 노동자의 20.1%임.

- 여성(13.5%)은 남성(25.1%)보다 11.6%p 적고, 비정규직(5.8%)은 정규직(32.0%)보다 26.2%p 적음.
- 성별 고용형태별로 장기근속자 비율은 '남성정규직(36.2%)>여성정규직(24.0%)>남성비정규직(6.3%)>여성비정규직(5.3%)' 순임.

<표15> 성별 고용형태별 장기근속자 추이(단위: %)

	남녀			남성			여성			
	2004년	2009년	2014년	2004년	2009년	2014년	2004년	2009년	2014년	
임금노동자	15.2	16.5	20.1	20.9	22.0	25.1	7.2	9.1	13.5	
정규직	30.1	31.2	32.0	35.0	35.4	36.2	18.2	21.3	24.0	
비정규직	3.4	2.9	5.8	4.6	3.2	6.3	2.3	2.7	5.3	
고용 계약	임시근로	3.1	2.9	5.5	4.1	3.1	5.9	2.2	2.7	5.2
	장기임시	2.9	3.1	5.9	3.3	2.8	5.6	2.6	3.4	6.1
	한시근로	3.4	2.6	5.0	5.0	3.6	6.2	1.7	1.8	3.8
	(기간제)	4.1	2.9	5.1	5.8	4.2	6.5	2.0	1.8	3.8
시간	시간제	1.2	1.2	3.0	1.1	0.3	3.1	1.3	1.5	3.0
근로 제공 방식	호출근로	0.2	0.1	0.2	-	-	-	0.4	0.3	0.8
	특수고용	8.3	8.6	21.9	9.1	4.9	18.5	7.7	10.4	23.9
	파견용역	2.8	2.3	6.0	3.4	2.4	6.7	2.1	2.1	5.3
	(파견)	3.4	2.4	6.2	5.6	4.2	11.3	1.6	1.1	2.6
	(용역)	2.4	2.3	6.0	2.9	2.0	5.5	1.7	2.5	6.5
	가내근로	2.9	1.0	5.2	4.3	-	25.1	2.7	1.2	3.7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부가조사 원 자료(각 년도 8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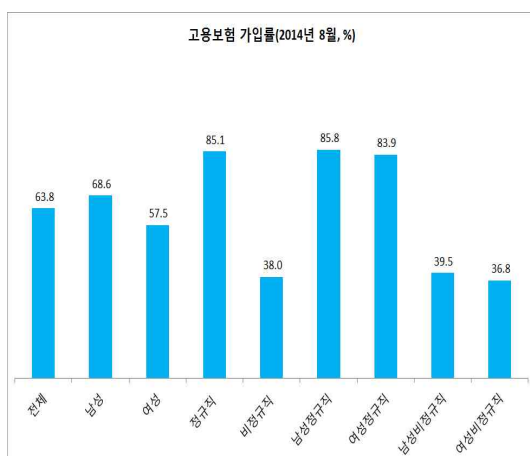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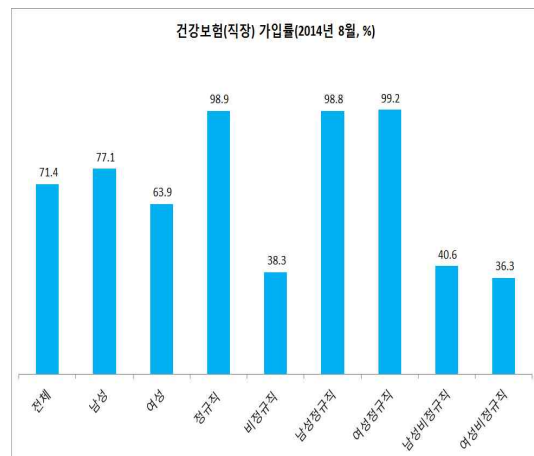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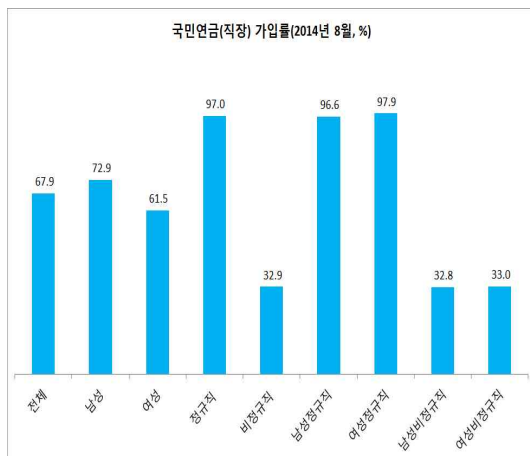
7. 사회보험 가입률

○ 2014년 8월 현재 국민연금(직장) 가입률은 67.9%임.

- 여성(61.5%)은 남성(72.9%)보다 11.4%p 낮고, 비정규직(32.9%)은 정규직(97.0%)보다 64.1%p 낮음. 남성정규직(96.6%)과 여성정규직(97.9%)의 가입률이 같고, 남성비정규직(32.8%)과 여성비정규직(33.0%)의 가입률이 같음.

○ 2014년 8월 현재 건강보험(직장) 가입률은 71.4%임.

- 여성(63.9%)은 남성(77.1%)보다 13.2%p 낮고, 비정규직(38.3%)은 정규직(98.9%)보다 60.6%p 낮음. 남성정규직(98.8%)과 여성정규직(99.2%)의 가입률이 같고, 남성비정규직(40.6%)과 여성비정규직(36.3%)의 가입률이 비슷함.



○ 2014년 8월 현재 고용보험 가입률은 63.8%임.

- 여성(57.5%)은 남성(68.6%)보다 11.1%p 낮고, 비정규직(38.0%)은 정규직(85.1%)보다 47.1%p 낮음. 남성정규직(85.8%)과 여성정규직(83.9%)의 가입률이 같고, 남성비정규직(39.5%)과 여성비정규직(36.8%)의 가입률이 비슷함.

○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 가입률은 뚜렷하게 차이가 나며, 정규직과 비정규직 내에서 성별 차이는 거의 없음.

<표16> 성별 고용형태별 국민연금(직장) 가입률 추이(단위: %)

	남녀			남성			여성			
	2004년	2009년	2014년	2004년	2009년	2014년	2004년	2009년	2014년	
임금노동자	59.5	64.7	67.9	68.1	72.0	72.9	47.6	54.9	61.5	
정규직	96.6	98.0	97.0	96.7	97.6	96.6	96.3	98.9	97.9	
비정규직	30.2	33.8	32.9	34.9	36.2	32.8	25.9	31.8	33.0	
고용 계약	임시근로	28.3	32.7	30.9	32.1	34.9	31.3	24.9	30.8	30.6
	장기임시	19.5	18.5	16.6	22.6	20.5	17.4	17.0	16.8	15.8
	한시근로	39.7	50.7	51.2	43.2	52.1	49.4	36.2	49.4	53.0
	(기간제)	48.3	62.6	58.5	49.8	63.1	56.4	46.6	62.1	60.6
시간	시간제	2.4	7.4	14.6	1.2	3.7	7.2	2.8	8.7	17.7
근로 제공 방식	호출근로	.5	.2	.1	.8	.3	.1	.0	.1	.1
	특수고용	26.1	.5	2.8	42.9	.9	6.2	13.3	.3	.9
	파견용역	55.7	61.3	55.2	56.9	57.8	50.4	54.2	65.1	60.1
	(파견)	62.8	73.2	69.1	72.2	81.3	71.0	55.0	66.9	67.8
	(용역)	53.7	58.1	50.7	53.5	52.9	45.4	53.9	64.5	57.0
	가내근로	13.7	8.3	9.1	57.9	44.5	25.5	6.7	3.1	7.9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부가조사 원 자료(각 년도 8월)

<표17> 성별 고용형태별 건강보험(직장) 가입률 추이(단위: %)

	남녀			남성			여성			
	2004년	2009년	2014년	2004년	2009년	2014년	2004년	2009년	2014년	
임금노동자	61.3	67.1	71.4	70.2	74.8	77.1	49.0	56.6	63.9	
정규직	97.3	98.5	98.9	97.5	98.4	98.8	96.8	98.9	99.2	
비정규직	32.9	37.9	38.3	38.5	41.9	40.6	27.7	34.4	36.3	
고용 계약	임시근로	30.9	36.7	36.1	35.6	40.6	39.0	26.6	33.4	33.7
	장기임시	21.9	19.8	18.8	25.8	22.7	20.6	18.8	17.3	17.3
	한시근로	42.5	58.1	60.7	47.2	62.0	63.0	37.8	54.6	58.4
	(기간제)	50.9	71.4	69.3	53.2	74.5	71.8	48.2	68.6	66.8
시간	시간제	3.7	8.8	17.8	3.0	5.5	11.1	3.9	10.0	20.5
근로 제공 방식	호출근로	.3	.4	.3	.5	.4	.1	.0	.4	.7
	특수고용	28.0	1.2	2.9	45.5	2.7	6.3	14.6	.5	.9
	파견용역	68.0	77.6	80.1	73.4	80.5	81.8	61.3	74.5	78.2
	(파견)	66.0	75.7	77.2	77.3	85.1	83.8	56.6	68.4	72.5
	(용역)	68.5	78.2	81.0	72.5	79.5	81.4	63.1	76.5	80.6
	가내근로	14.8	8.8	9.1	59.9	44.5	25.5	7.7	3.7	7.9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부가조사 원 자료(각 년도 8월)

<표18> 성별 고용형태별 고용보험 가입률 추이(단위: %)

	남녀			남성			여성			
	2004년	2009년	2014년	2004년	2009년	2014년	2004년	2009년	2014년	
임금노동자	52.1	58.9	63.8	59.4	65.5	68.6	42.0	49.8	57.5	
정규직	80.5	82.4	85.1	81.0	83.5	85.8	79.2	80.1	83.9	
비정규직	29.7	37.0	38.0	34.2	40.5	39.5	25.4	33.9	36.8	
고용 계약	임시근로	27.7	35.9	36.1	31.4	39.3	38.0	24.5	33.0	34.3
	장기임시	19.9	20.0	21.0	22.8	23.3	23.4	17.4	17.3	19.1
	한시근로	38.0	55.9	57.3	41.4	58.4	57.2	34.6	53.7	57.4
	(기간제)	45.8	68.7	64.9	47.3	70.1	64.5	44.0	67.4	65.3
시간	시간제	3.6	9.1	19.5	3.0	5.9	13.6	3.7	10.2	21.9
근로 제공 방식	호출근로	1.6	5.1	5.3	1.9	6.9	7.0	1.0	1.8	1.6
	특수고용	24.1	2.3	3.6	41.0	2.9	6.8	11.2	2.0	1.7
	파견용역	55.3	71.8	69.3	55.2	71.3	66.4	55.3	72.3	72.3
	(파견)	63.7	77.1	77.9	72.3	84.2	80.4	56.6	71.7	76.1
	(용역)	52.8	70.3	66.6	51.4	68.6	63.0	54.8	72.5	70.7
	가내근로	13.8	7.6	9.1	55.7	39.3	25.5	7.1	3.1	7.9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부가조사 원 자료(각 년도 8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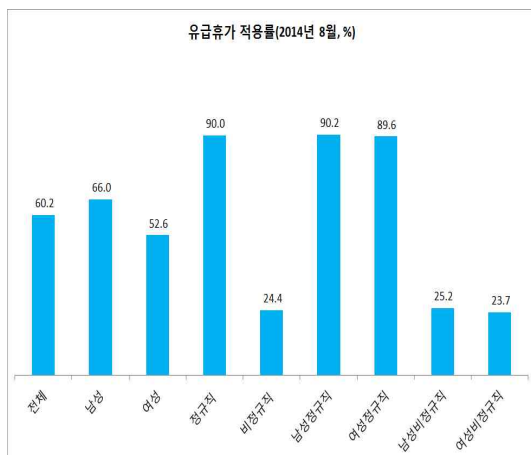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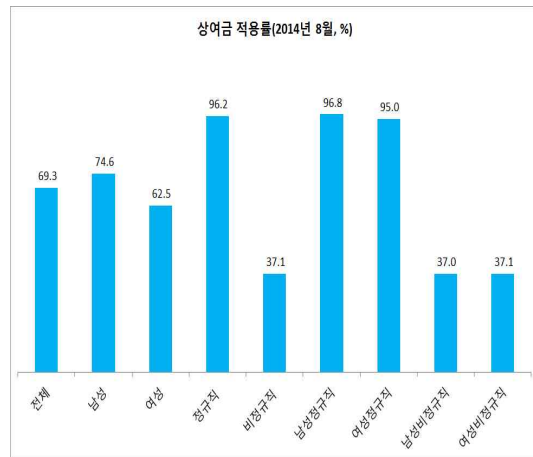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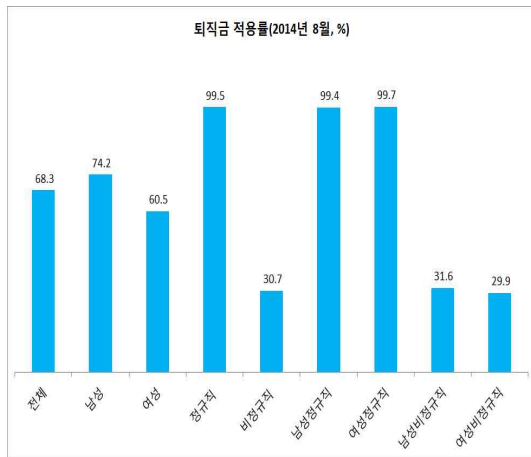
8. 노동조건 적용률

○ 2014년 8월 현재 퇴직금 적용률은 68.3%임.

- 여성(60.5%)은 남성(74.2%)보다 13.7%p 낮고, 비정규직(30.7%)은 정규직(99.5%)보다 68.8%p 낮음. 남성정규직(99.4%)과 여성정규직(99.7%)의 적용률이 같고, 남성비정규직(31.6%)과 여성비정규직(29.9%)의 적용률이 비슷함.

○ 2014년 8월 현재 상여금 적용률은 69.3%임.

- 여성(62.5%)은 남성(74.6%)보다 12.1%p 낮고, 비정규직(37.1%)은 정규직(96.2%)보다 59.1%p 낮음. 남성정규직(96.8%)과 여성정규직(95.0%)의 적용률이 비슷하고, 남성비정규직(37.0%)과 여성비정규직(37.1%)의 적용률이 같음.



○ 2014년 8월 현재 유급휴가 적용률은 60.2%임.

- 여성(52.6%)은 남성(66.0%)보다 13.4%p 낮고, 비정규직(24.4%)은 정규직(90.0%)보다 65.6%p 낮음. 남성정규직(90.2%)과 여성정규직(89.6%)의 적용률이 같고, 남성비정규직(25.2%)과 여성비정규직(23.7%)의 적용률이 비슷함.

○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퇴직금, 상여금, 유급휴가 등 노동조건 적용률은 뚜렷하게 차이가 나며, 정규직과 비정규직 내에서 성별 차이는 거의 없음.

<표19> 성별 고용형태별 퇴직금 적용률 추이(단위: %)

	남녀			남성			여성			
	2004년	2009년	2014년	2004년	2009년	2014년	2004년	2009년	2014년	
임금노동자	54.0	61.5	68.3	63.7	70.3	74.2	40.7	49.5	60.5	
정규직	99.1	99.2	99.5	99.0	99.1	99.4	99.3	99.4	99.7	
비정규직	18.4	26.4	30.7	22.7	30.0	31.6	14.5	23.3	29.9	
고용 계약	임시근로	15.9	25.0	28.3	18.9	28.5	29.6	13.1	22.1	27.1
	장기임시	4.5	11.3	10.6	4.8	12.2	10.2	4.2	10.5	11.0
	한시근로	30.8	42.5	53.2	35.4	48.0	55.1	26.0	37.4	51.4
	(기간제)	41.2	53.3	61.5	44.3	59.2	64.2	37.6	47.7	58.9
시간	시간제	2.0	5.5	13.1	1.0	2.1	6.3	2.3	6.7	15.9
근로 제공 방식	호출근로	.2	.3	.4	.3	.4	.2	.0	.0	.8
	특수고용	19.2	.7	2.8	34.1	1.1	5.3	7.8	.5	1.4
	파견용역	49.4	68.6	74.0	55.2	70.2	75.1	42.1	66.7	72.9
	(파견)	54.5	64.3	72.0	65.3	72.6	75.6	45.5	57.9	69.5
	(용역)	47.9	69.7	74.6	53.0	69.7	75.0	40.9	69.7	74.3
	가내근로	12.6	7.0	5.5	53.8	44.5	13.8	6.0	1.6	4.8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부가조사 원 자료(각 년도 8월)

<표20> 성별 고용형태별 상여금 적용률 추이(단위: %)

	남녀			남성			여성			
	2004년	2009년	2014년	2004년	2009년	2014년	2004년	2009년	2014년	
임금노동자	51.6	61.0	69.3	61.6	69.6	74.6	37.7	49.2	62.5	
정규직	96.2	97.6	96.2	96.4	98.0	96.8	95.6	96.5	95.0	
비정규직	16.4	27.0	37.1	21.1	30.0	37.0	11.9	24.5	37.1	
고용 계약	임시근로	14.0	25.8	35.2	17.6	28.6	35.5	10.8	23.4	35.0
	장기임시	4.6	16.4	25.3	5.5	16.1	23.6	4.0	16.6	26.7
	한시근로	26.3	37.7	49.2	31.9	43.5	51.1	20.6	32.3	47.5
	(기간제)	35.0	46.8	55.0	39.9	53.3	57.3	29.4	40.6	52.8
시간	시간제	1.8	8.8	16.5	2.1	4.6	9.9	1.7	10.3	19.2
근로 제공 방식	호출근로	.0	.7	4.5	.0	.8	4.3	.0	.6	4.9
	특수고용	18.0	3.6	16.9	32.9	3.9	17.0	6.7	3.5	16.8
	파견용역	38.1	53.2	62.4	45.5	55.4	62.4	29.1	50.8	62.5
	(파견)	46.0	57.2	65.1	60.0	67.3	68.0	34.3	49.5	63.1
	(용역)	35.9	52.2	61.6	42.2	52.9	61.1	27.2	51.2	62.2
	가내근로	11.0	8.5	2.2	46.1	48.7	.0	5.4	2.8	2.4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부가조사 원 자료(각 년도 8월)

<표21> 성별 고용형태별 유급휴가 적용률 추이(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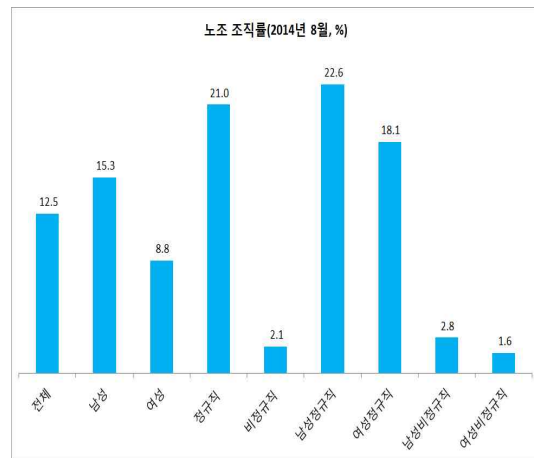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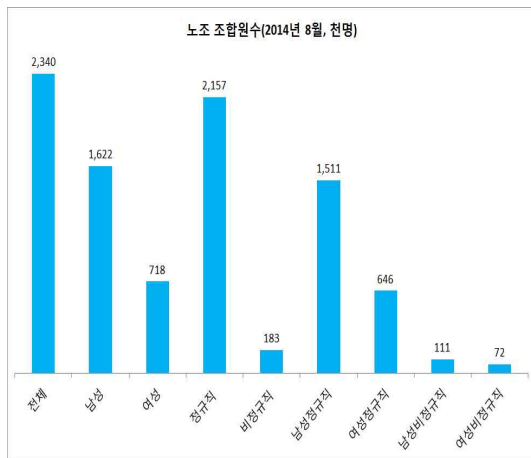
	남녀			남성			여성			
	2004년	2009년	2014년	2004년	2009년	2014년	2004년	2009년	2014년	
임금노동자	45.8	57.0	60.2	54.1	64.9	66.0	34.3	46.3	52.6	
정규직	83.6	92.6	90.0	84.2	92.6	90.2	82.2	92.8	89.6	
비정규직	15.8	24.0	24.4	19.0	26.4	25.2	12.9	21.9	23.7	
고용 계약	임시근로	14.2	22.9	22.5	16.5	25.1	23.6	12.0	21.0	21.5
	장기임시	6.3	7.1	7.6	7.0	7.3	7.2	5.8	6.9	7.9
	한시근로	24.4	42.8	43.5	27.7	46.3	45.0	21.1	39.7	42.1
	(기간제)	31.4	54.7	51.1	33.7	58.1	52.7	28.8	51.4	49.7
시간	시간제	1.6	4.3	8.2	0.7	1.9	4.7	1.9	5.2	9.6
근로 제공 방식	호출근로	0.1	0.2	-	-	0.2	-	0.1	0.1	-
	특수고용	15.0	0.3	3.0	27.0	-	4.7	5.9	0.4	2.1
	파견용역	29.4	50.0	52.9	33.8	52.4	53.1	24.0	47.3	52.6
	(파견)	43.4	58.6	58.9	55.7	70.3	62.8	33.1	49.5	56.2
	(용역)	25.4	47.7	51.0	28.9	48.7	50.8	20.7	46.5	51.2
	가내근로	11.2	5.4	2.8	52.0	38.8	-	4.7	0.7	3.0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부가조사 원 자료(각 년도 8월)

9. 노조 가입

○ 2014년 8월 현재 노조 조합원수(조직률)는 234만 명(12.5%)임.

- 남성은 162만 명(15.3%)으로 여성 72만 명(8.8%)보다 90만 명(6.5%p) 많음.
- 정규직은 216만 명(21.0%)으로 비정규직 18만 명(2.1%)보다 198만 명(18.9%p) 많음.
- 성별 고용형태별 조합원수는 ‘남성정규직(151만 명)>여성정규직(65만 명)>남성비정규직(11만 명)>여성비정규직(7만 명)’ 순이고, 성별 고용형태별 조직률은 ‘남성정규직(22.6%)>여성정규직(18.1%)>남성비정규직(2.8%)>여성비정규직(1.6%)’ 순임.



<표22> 성별 고용형태별 노조 조합원수 추이(단위: 천명)

	남녀			남성			여성			
	2004년	2009년	2014년	2004년	2009년	2014년	2004년	2009년	2014년	
임금노동자	1,815	2,003	2,340	1,369	1,484	1,622	446	519	718	
정규직	1,565	1,832	2,157	1,180	1,371	1,511	385	461	646	
비정규직	250	171	183	189	113	111	61	58	72	
고용 계약	임시근로	191	156	155	138	102	97	53	54	58
	장기임시	60	41	27	44	27	17	16	14	10
	한시근로	131	115	127	94	75	79	37	40	48
	(기간제)	122	110	115	88	71	72	34	39	43
시간	시간제	6	6	19	1	2	4	5	4	15
근로 제공 방식	호출근로	3	2	-	2	1	-	1	1	-
	특수고용	54	3	-	50	2	-	4	1	-
	파견용역	19	27	29	11	16	16	8	11	13
	(파견)	6	5	9	4	5	4	2	-	5
	(용역)	14	22	22	8	11	13	6	11	9
	가내근로	5	1	1	4	1	-	1	-	1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부가조사 원 자료(각 년도 8월)

<표23> 성별 고용형태별 노조 조직률 추이(단위: %)

	남녀			남성			여성			
	2004년	2009년	2014년	2004년	2009년	2014년	2004년	2009년	2014년	
임금노동자	12.4	12.2	12.5	16.1	15.6	15.3	7.3	7.4	8.8	
정규직	24.3	23.1	21.0	25.9	24.8	22.6	20.5	19.2	18.1	
비정규직	3.1	2.0	2.1	4.8	2.8	2.8	1.5	1.3	1.6	
고용 계약	임시근로	2.4	1.9	1.9	3.7	2.6	2.5	1.3	1.2	1.3
	장기임시	1.3	0.9	0.6	2.2	1.3	0.8	0.6	0.6	0.4
	한시근로	3.8	3.1	3.7	5.4	4.2	4.8	2.2	2.1	2.7
	(기간제)	4.9	3.9	4.2	6.5	5.2	5.4	3.0	2.7	3.1
시간	시간제	0.5	0.4	0.9	0.3	0.6	0.6	0.6	0.4	1.1
근로 제공 방식	호출근로	0.4	0.3	-	0.4	0.2	-	0.5	0.4	-
	특수고용	7.6	0.5	-	16.2	1.0	-	1.0	0.3	-
	파견용역	3.7	3.4	3.7	3.9	3.8	4.0	3.4	3.0	3.4
	(파견)	5.0	3.1	4.2	6.8	6.4	4.5	3.6	0.5	4.0
	(용역)	3.3	3.5	3.5	3.3	3.2	3.9	3.4	3.8	3.1
	가내근로	3.2	1.0	1.1	17.3	7.7	-	0.9	-	1.2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부가조사 원 자료(각 년도 8월)

10. 맺는 말

가. 요약

○ 2014년 8월 현재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 특징을 발견할 수 있음

- 첫째, 여성 비정규직 임금은 여성 차별과 비정규직 차별이 중첩되어 있음. 남성 정규직 임금을 100이라 할 때 여성 비정규직의 월평균임금은 35.9%, 시간당 임금은 41.8%임. 여성 비정규직 중 저임금 계층은 55.7%(시간당 임금 기준) 내지 61.0%(월평균임금 기준)고, 법정 최저임금 미달 자는 140만 명(30.6%)에 이름.
- 둘째, 사회보험 가입률과 노동조건 적용률은 남녀 간에 성 차이는 발견되지 않고 고용형태에 따른 차이가 뚜렷함. 예컨대 국민연금 가입률은 남성 정규직(96.6%)과 여성 정규직(97.9%)이 같고, 남성 비정규직(32.8%)과 여성 비정규직(33.0%)이 같음. 퇴직금 적용률도 남성 정규직(99.4%)과 여성 정규직(99.7%)이 같고, 남성 비정규직(31.6%)과 여성 비정규직(29.9%)이 같음.
- 셋째, 근속년수는 '남성정규직>여성정규직>남성비정규직≒여성비정규직'으로 정규직은 남녀 차이가 있지만, 비정규직은 남녀 차이가 없음.

○ 지난 10년 사이(2004~2014년) 추이를 살펴보면 다음 특징을 발견할 수 있음.

- 첫째, 남성 정규직 대비 여성 비정규직의 임금격차는 지난 10년 사이 더욱 심화되었음. 남성 정규직 임금을 100이라 할 때 여성 비정규직의 월평균임금은 37.3%에서 35.9%로 1.4%p 확대되었고, 시간당 임금은 42.9%에서 41.8%로 1.1%p 확대되었음. 월평균임금 기준으로 저임금 계층은 57.3%에서 61.0%로 3.7%p 증가했고, 시간당 임금 기준으로는 53.3%에서 55.7%로 2.4%p 증가했음. 최저임금 미달 자는 54만 명(12.8%)에서 140만 명(30.6%)으로 86만 명(17.8%p) 증가했음.
- 둘째, 지난 10년 동안 부분적으로 개선되기는 하였어도 비정규직의 사회보험 가입률과 노동조건 적용률이 30%대를 넘어서지 못 하고 있음. 즉 2014년 8월 현재 비정규직의 국민연금 가입률은 32.9%, 건강보험 가입률은 38.3%, 고용보험 가입률은

38.0%, 퇴직금 적용률은 30.7%, 상여금 적용률은 37.1%, 유급휴가 적용률은 24.4%임. 이는 현행 사회보험 제도나 근로기준법 체계로는 비정규직을 보호하는데 근본적인 한계가 있음을 말해줌.

○ 시간제 근로와 관련해서는 다음 특징을 발견할 수 있음.

- 첫째, 지난 10년 동안 시간제 근로는 107만 명(전체 노동자의 7.4%)에서 203만 명(10.8%)로 96만 명(3.4%p) 증가했음. 그러나 고용의 질은 오히려 악화되고 있음. 즉 정규직 임금을 100이라 할 때 시간제 근로의 월평균임금은 25.5%에서 22.9%로 격차가 확대되고, 시간당 임금은 65.8%에서 48.0%로 격차가 확대되었음. 시간당 임금 기준으로 저임금 계층은 44.3%에서 62.5%로 18.2%p 증가하고, 최저임금 미달자는 17.2%에서 39.2%로 22.0%p 증가했음.
- 둘째, 지난 10년 동안 부분적으로 개선되기는 하였어도 시간제 근로의 사회보험 가입률과 노동조건 적용률은 10%대를 넘어서지 못 하고 있음. 즉 2014년 8월 현재 시간제 근로의 국민연금 가입률은 14.6%, 건강보험 가입률은 17.8%, 고용보험 가입률은 19.5%, 퇴직금 적용률은 13.1%, 상여금 적용률은 16.5%, 유급휴가 적용률은 8.2%임.

<표24> 성별 고용형태별 규모와 실태(2014년 8월, 요약)

	전체	남성	여성	정규직	비정규직	남성 정규직	여성 정규직	남성 비정규직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수(천명)	18,776	10,635	8,141	10,254	8,522	6,682	3,572	3,953	4,569
구성비(%)	100.0	56.6	43.4	54.6	45.4	35.6	19.0	21.1	24.3
월평균임금(만원)	223	270	162	289	144	326	219	176	117
격차(%)	77.3	100.0	60.0	100.0	49.9	100.0	67.2	53.9	35.9
시간당임금(원)	12,533	14,808	9,562	15,918	8,461	17,891	12,227	9,598	7,478
격차(%)	78.7	100.0	64.6	100.0	53.2	100.0	68.3	53.6	41.8
저임금계층(월,%)	24.5	13.2	39.1	5.0	47.9	1.7	11.2	32.7	61.0
저임금계층(시간,%)	24.1	14.7	36.4	6.2	45.7	3.2	11.6	34.1	55.7
최저임금미달자(천명)	2,270	788	1,482	157	2,113	72	85	716	1,397
최저임금미달자(%)	12.1	7.4	18.2	1.5	24.8	1.1	2.4	18.1	30.6
주당노동시간(시간)	41.5	43.1	39.4	42.7	40.0	43.1	42.1	43.1	37.3
52시간초과근무(%)	10.8	12.7	8.4	7.4	15.0	8.7	5.0	19.6	11.1

평균근속년수(년)	5.6	6.6	4.3	8.3	2.4	9.1	6.7	2.4	2.4
단기근속자비율(%)	32.3	29.1	36.6	14.8	53.4	13.0	18.1	56.2	51.0
장기근속자비율(%)	20.1	25.1	13.5	32.0	5.8	36.2	24.0	6.3	5.3
국민연금가입률(%)	67.9	72.9	61.5	97.0	32.9	96.6	97.9	32.8	33.0
건강보험가입률(%)	71.4	77.1	63.9	98.9	38.3	98.8	99.2	40.6	36.3
고용보험가입률(%)	63.8	68.6	57.5	85.1	38.0	85.8	83.9	39.5	36.8
퇴직금적용률(%)	68.3	74.2	60.5	99.5	30.7	99.4	99.7	31.6	29.9
상여금적용률(%)	69.3	74.6	62.5	96.2	37.1	96.8	95.0	37.0	37.1
유급휴가적용률(%)	60.2	66.0	52.6	90.0	24.4	90.2	89.6	25.2	23.7
조합원수(천명)	2,340	1,622	718	2,157	183	1,511	646	111	72
조직률(%)	12.5	15.3	8.8	21.0	2.1	22.6	18.1	2.8	1.6

나. 정책과제

1) 상시·지속적 일자리 정규직 고용관행 정착(박근혜 정부 대선 공약)

- 지금까지 정부는 상시·지속적 일자리 정규직화를 공공부문 직접고용 비정규직(기간제)으로 대상을 한정하고 있으나, 공공부문 간접고용(파견, 용역)과 민간 대기업(파견, 용역, 사내하청)으로 적용대상을 확대해야 함.

2) 법정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감독 강화

- 시중노임단가(보통인부, 단순노무종사원) 8,019원(≒노동부 5인 이상 사업체 정액급여 평균의 50%, 정부 용역근로자 보호지침) 수준에서 최저임금을 정하고, 최저임금 준수를 위한 근로감독 행정을 강화해야 함.

3) 시간제 일자리의 질 개선

- 정부는 상용 시간제 일자리 확대를 추진하고 있으나, 기존의 시간제 일자리 ‘고용의 질’부터 개선해야 할 것.

4) 노조 조직화와 단체협약 효력확장

- 여성 비정규직 조직화와 산업별 단체협약 효력확장을 통해 미조직 노동자를 보호하고 해당 산업·직업을 규율할 수 있어야 함.

5) 여성의 경력단절 해소

- o 20대는 고용률, 비정규직 비율, 임금 등에서 남녀 차이가 발견되지 않음. 그러나 30대는 남녀 간에 차이가 뚜렷하게 드러남.

- 여성에게 30대는 노동시장 경력단절기 : 결혼과 자녀출산, 양육 등으로 일과 가정의 양립이 쉽지 않기 때문.

